

『영미연구』

제56집 (2022): 77-100

<http://doi.org/10.25093/ibas.2022.56.77>

루이스 그레식 기본의 『스코틀랜드 서』: 생태적 상상과 역사의식*

손 일 수

단독 / 부산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스코틀랜드 작가 루이스 그레식 기본의 3부작 소설 『스코틀랜드 서』를 분석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 학술적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국내 영문학계에서 여전히 학문적 관심을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문학, 특히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르네상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잉글랜드 중심의 영국문학 이해를 재고하고 20세기 영문학과 모더니즘의 국내 연구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스코틀랜드 르네상스는 1차 세계대전 후 영제국과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운동이었고, 반동적인 민족주의나 목가적인 지역주의로 귀결되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스코틀랜드 르네상스의 대표적 소설가인 기본의 대표작을 생태비평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저자가 스코틀랜드의 생태 환경에 기반한 어떤 형태의 사회관계와 공동체를 제시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인물 크리스의 생태적 태도와 상상력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계도하고 개조하려는 인본주의적 이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기본의 소설은 생태적 상상력을 통해 인본주의를 넘어서는 보다 확장되고 지속 가능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8047134)

사회관계를 지향하면서도,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력과 자원의 유무에 대한 냉엄한 역사의식도 유지한다. 기본은 이 갈등을 당대의 사회적 지평에서 찾을 수 없었던 조건을 가상으로 창조하여 해소하려는 로맨스적인 유혹에 저항한다. 이 저항을 통해 그는 방대한 소설의 서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작품의 예술성을 최대치로 달성한다.

주제어: 『스코틀랜드 서』, 루이스 그래식 기본,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생태적 상상, 역사의식

1. 들어가며

루이스 그래식 기본(Lewis Grassic Gibbon, 본명 James Leslie Mitchell, 1901-1935)의 『스코틀랜드 서』(*A Scots Quair*)는 『일몰의 노래』(*Sunset Song*, 1932), 『구름 골짜기』(*Cloud Howe*, 1933), 그리고 『잿빛 화강암』(*Grey Granite*, 1934)의 3부작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소설이다. 생몰 연대와 출판 연도에서 보듯 저자는 이른 죽음을 앞두고 적지 않은 분량의 소설을 3년간 매해 발표했고,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 르네상스의 가장 빼어난 문학적 성취 중 하나로 남아있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작가 기본 그리고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르네상스의 대표작을 통해 국내에 일천한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연구를 개진하고, 나아가 모더니즘 연구의 지리적, 예술적 외연을 넓히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1707년의 연합법(Acts of the Union)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원칙상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영국(Great Britain)을 형성하였으나, 스코틀랜드 정체성과 영국(British) 정체성 사이의 관계는 늘 긴장과 모순, 그리고 갈등을 내포했다. 마저리 팔머 맥컬록(Margery Palmer McCulloch)은 스코틀랜드 노동 계층에 대한 로버트 번즈(Robert Burns)의 막대한 영향력을 단적인 예로 지적하며, “19세기 내내 스코틀랜드성

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영국성은 아마도 여전히 묻혀 있었다”(6)고 지적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었던 스코틀랜드 관련 사건들 역시 이러한 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997년 스코틀랜드 자치권 이양 가결, 비록 실패했으나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 스코틀랜드 지역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던 2016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 등은 일반인은 물론 한국의 영문학 연구자들에게도 새삼 영국 내부의 다양한 민족 문화와 지정학적 차이를 환기시켰다.

스코틀랜드 르네상스는 바로 약 100년 전 스코틀랜드 고유의 민족적 정체성을 주창했던 문화 운동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영제국의 헤게모니를 비판하고 스코틀랜드 특유의 언어 및 문학적 전통을 재해석하려던 시도로서, 스코틀랜드 르네상스는 아일랜드 문예 부흥이나 할렘 르네상스(the Harlem Renaissance)처럼 비슷한 시기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 중 하나라고 할 만하다.¹⁾ 리처드 핀리(Richard Finlay)는 영국의 통합주의적 민족주의(Unionist Nationalism) 신봉자들은 영제국의 발전 과정에서 스코틀랜드의 역할을 강조했다지만, “전쟁 후 이 믿음의 많은 교리가 눈에 띄게 타당성을 상실했다”(8)고 평한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19세기까지 가까스로 은폐되었던 영제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문화적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트레버 로일(Trevor Royle)이 지적하는 것처럼, 많은 스코틀랜드 문인들은 “1920년대에 이르러 잉글랜드 문화가 소진되었다”고 인식했으며, “세계 대전이 조금도 작은 나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치러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49). 스코틀랜드 르네상스는 바로 이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대한 문학적 반응이었다.

시인 휴 맥디어미드(Hugh MacDiarmid, 1892-1978)의 주도하에 기본 외에 닐 군(Neil Gunn, 1891-1973), 낸 셰퍼드(Nan Shepherd, 1893-1981) 등 여러 작가들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문예 부흥 운동은 전개되었다. 그들은 잉글랜드와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스코틀랜드의 민족적, 언어적 정체성을 고민했다. 엘리너 벨(Eleanor Bell)에 따르면 많은 스코틀랜드 문인들이 “영어가 스코틀랜드인에게 적절한 표현 수단을 제공할 수 없지만, 현재 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곤경으로부터 탈출할 방법이 없다”(16)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각종 대안을 모색했다. 그들의 성과는 곧

1920, 30년대 스코틀랜드 문학사를 특징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스코틀랜드 문학의 성격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단적인 예로, 기본의 『스코틀랜드 서』 중 1부인 『일몰의 노래』는 2016년 스코틀랜드 BBC가 독서 대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스코틀랜드 소설 1위에 선정되는 등 확고한 고전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그간 국내외 영문학계는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문학에 그리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평자들은 잉글랜드와의 합병 이후 스코틀랜드의 문학, 특히 자연환경을 다루는 방식이 목가적이거나 전원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숙한 근대 문학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채원파”(Kailyard School)라고 불리는 19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의 문학 운동은 감상주의적인 면모 때문에 전근대적이라는 평가에 시달렸다. 당시 켈트주의(Celticism)는 스코틀랜드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광범위한 문화적 표현으로서 주장되었다. 제러드 캐러더스(Gerard Carruthers)에 따르면 계몽주의 시대 이래 서구의 정신이 보다 원시적이고 지역적인 문화와의 교감을 상실한 가운데, 켈트의 정신은 여전히 “자연의 변경, 시적으로 또는 비합리적 지혜로 이야기하는 ‘야생의 꿈의 대지’”(9, 강조 원문)에 속해 있다는 인식이 영국 내에 구축되었고 현재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문학이 이런 식으로 타자화되고 신비화될 때, 그것은 결국 잉글랜드의 문학에 비해 하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Carruthers 2).²⁾

평자 톰 네인(Tom Naim)은 정치 경제사적 맥락을 통해 스코틀랜드 문학의 후진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 문학이 일반적으로 민족(주의)의 발전과 함께하는데, 스코틀랜드는 합병 이후 로우랜드 스코틀랜드(Lowland Scotland)와 하이랜드 스코틀랜드(Highland Scotland)가 사회적으로 분리되면서 소위 유기적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다. 로우랜드 스코틀랜드의 부르주아 집단이 런던 중심의 경제 체제에 급속히 합류한 반면 하이랜드 스코틀랜드는 근대적 발전으로부터 완전히 주변화되고 변방의 ‘구시대’적 집단으로 남게 되면서, 스코틀랜드는 19세기 유럽의 혁명적 물결 속에서도 저항적 민족주의와 그에 상응하는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Nairn 92-125). 통일된 유기체적 공동체 개념을 이용해 스코틀랜드 문학의 후진성 내지 결함을 증명하려 한 초기의 전형적인 시도는 T. S. 엘리엇(T. S. Eliot)의 에세이, 「스코틀랜드 문학이라는 것이 있는가?」 (“Was There a Scottish Literature?”)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스코틀랜드 르네상스의 문학적 성취를 제대로 평가해 주려는 평가들이 꾸준히 나타났다. 케언스 크레이크(Cairns Craig)은 스코틀랜드 문학을 후진적으로 평하는 관행은 근본적으로 런던 중심의 근대적 역사관을 규범으로 간주하는 관점의 결과이며, 오히려 스코틀랜드 문학은 그러한 역사관의 발전주의적, 목적론적 요소를 비판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고 주장한다(30-63). 특히 최근 여러 평가들은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작가들이 스코틀랜드 특유의 구술 문학, 자연환경, 역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동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 지역주의로 귀결되지 않고 날카로운 역사의식과 함께 독특한 스토리텔링 기법과 같은 예술적 실험성을 과시했다고 평한다. 이언 캠벨(Ian Campbell)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가들은 “그들의 스코틀랜드 경험에 의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스코틀랜드의 총체성을 비롯한 모종의 단순한 진실을 오롯이 파악했다고 주장할 수도, 또 주장하려 들지도 않는다”(111). 로드릭 왓슨(Roderick Watson) 역시 기본 등의 작가들이 스코틀랜드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영국 내 스코틀랜드의 모순적 성격을 고민했고, 결과적으로 “정체성의 핵심에 담긴 불안정성과 모순”(“Renaissance” 76)을 대변한다고 평한다. 왓슨은 스코틀랜드 르네상스의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기원, 진리, 정체성(스코틀랜드이든 아니든)에 대한 단순화된 개념이 사실상 해체된다”(77)고 주장하며, 모더니즘,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상기시키는 문학적 성취를 발견한다.³⁾

스코틀랜드 르네상스가 낳은 걸작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서』 3부작은 여성 인물 크리스(Chris)가 차례로 몸담는 북동쪽 스코틀랜드의 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낸다. 시간상으로 대략 20세기에 들어서는 시점부터 마지막 편이 출간된 시점과 동일한 30년대 중반까지, 크리스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아들이 성년이 되어 활동하는 시점까지를 다루고 있다. 크레이크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스코

틀랜드가 “역사에 재진입”(56) 하는 계기를 얻었다고 평하듯,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는 스코틀랜드 변방도 근대 역사로부터 이제는 분리된 채 존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스코틀랜드의 지식인과 작가들을 사로잡았다. 작중 크리스는 20세기 초반 자기 파괴로 치달고 있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물결이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을 목도하고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본 논문은 특히 크리스의 생태적 상상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곧 20세기 초 세계사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 반응과 성찰의 형태로 제시된다. 본 논문은 근대성의 파국에 직면하여 작가가 크리스의 생태적 상상력에 어떤 대안적 가능성을 부여하는지, 또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그것의 한계 역시 어떻게 성찰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평자들은 20세기 초중반 스코틀랜드 문학에서 자연환경의 재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루이자 게인(Louisa Gaim)은 기본의 작품을 다루지는 않지만, 동시대 여러 스코틀랜드 작가들의 작품이 “생태적 이론과 질문을 의식하는 방식으로 자연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탐색”(148) 한다고 평한 바 있다. 반면 버트홀드 슈에네(Berthold Shoene)는 스코틀랜드인들이 기본의 작품에서 “땅의 구심력, 그것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건한 토착적 매력과 탄탄한 자생력에 의해 짓눌려 있다”(78)면서, 기본이 생태 환경을 민족주의 이념으로 신비화하는 오류를 저지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기본의 소설이 어떻게 생태적 상상력을 당시 역사적 조건, 권력관계 속에 철저히 맥락화하는지 주목할 것이다. 기본은 생태적 상상력을 통해 인본주의를 넘어서는 보다 확장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관계에 대한 기획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냉엄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작가적 의식을 타협하지도 않는다. 기본은 이 교착 상태를 당대의 현실적 지평에서 찾을 수 없었던 조건을 가상으로 창조하여 해소하려는 로맨스적 유희에 저항한다. 본 논문은 이 저항을 통해 기본의 작품이 생태적 상상력과 역사 의식 사이의 서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특유의 예술성을 최대치로 달성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2. 『일몰의 노래』: 생태적 의식과 주체성의 확장

『일몰의 노래』는 대략 20세기 초입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킨래디(Kinraddie)라는 소작농들(crofters)로 주로 이루어진 작은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크리스의 성장과 첫 번째 결혼,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그린다. 특히 성장기의 크리스는 교육의 기회와 자기실현, 사회적 이동성을 추구하는 자아와 전통적 농경사회 및 대지에 대한 애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크리스는 “그 땅과 마을 사람들의 거친 말씨를 증오”(41)했다가도, 바로 이어서 “너의 얼굴에 닿는 대지의 냄새, 그것의 아름다움, 스코틀랜드 땅과 하늘의 달콤함에 거의 울음을 터뜨린다”(41)고 말한다.⁴⁾ 결국 “두 명의 크리스가 그녀의 마음을 두고 싸웠고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다”(41).

크리스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목에서 뛰어났고 장래가 꽤 촉망되었음에도, 결국 런던이 상징하는 근대적 발전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길 단념하고 대지와 밀착된 삶을 선택하면서 고전적인 성장소설(bildungsroman)과는 다른 경로의 성장 서사를 보여준다. 근대적 개인이 소위 유기적인 민족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자발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민족 공동체가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고전적 성장소설이라면, 크리스가 동일시하려는 이 공동체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위의 집합체가 아니라 런던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사멸의 위기에 놓인 스코틀랜드 특유의 농촌 집단이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의 이러한 성장 경로가 근대화로부터의 패배주의적인 이탈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화자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쓰고 싸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말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저 한 번의 숨결만큼, 언덕의 안개만큼 지속되었을 뿐이지만 땅은 영원하다. . . . 그런데 그녀가 땅을 떠나려고 했다니!”(123)라고 말하며 크리스와 그녀의 마을 사람들이 밭 딛고 선 대지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제프리 메이스 매카시(Jeffrey Mathes McCarthy)는 최근의 생태비평 경향을 설명하며, “근대성에 의해 위협당한 작은 현지 장소들에 대한 지역주의적 보호”(31)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

적한다. 이에 덧붙여 그는 지역에 대한 “그러한 뿌리내림이 문화적 세력”(31)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크리스의 경우도 대지와 동시기가 곧 목가적 이상향으로의 도피를 상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지역 생태적 환경에 대한 소속감은 역사의식의 확장과 집단적 주체성의 자각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크리스는 킨래디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곧 남편이 될 이완(Ewan)과 스코틀랜드 북동쪽 해변을 거닐다 더노타 성(Dunnottar Castle)을 방문하고, 거기서 17세기 잉글랜드에 대항해 싸우다 전사한 스코틀랜드인들을 기억하기도 한다. 그곳에서 크리스는 “지금은 그녀가 도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아프고, 분노하고, 슬퍼하”(128)면서 그들을 애도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자신의 삶을 고되게 했던 아버지, 자신으로 하여금 그 마을을 벗어난 삶을 꿈꾸게 했던 아버지의 장례식 때는 비로소 아버지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대변했던 스코틀랜드 소작농의 역사를 상상한다. 크리스에 따르면 그는 “자식들이 입고, 먹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땅, 그리고 지주들을 상대로 싸웠고 . . . 오직 신만이 끝내 그를 이길 수 있었다”(120). 티모시 베이커(Timothy Baker)가 말하듯 이 소설에서 “대지의 영속성은 . . . 개인의 의식을 초월하여 확장하는 연속성을 상징”(53)하면서 공동체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결국 땅에 기반한 집단적 지혜와 삶을 예찬하면서도, 소설은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닥쳐오는 사회적 힘을 간과하지 않는다. 작가는 물론 소설 속 인물들은 세계 경제 체제가 그들의 삶의 양식을 불가역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 반독일 프로파간다는 이곳까지 침투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개발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나무들은 잘려 나가며, 소작농들의 땅은 목초지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목재의 가격이 “끔찍하게 올랐”는데, “비행기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다(201). 징집을 거부하다 결국 전쟁에 참가하고 마는 킨래디 출신의 차이(Chae)는 휴가를 받고 돌아와 벌목 현장을 본다. 그리고 그는 전쟁 중에도 그를 지탱해주었던 정신적 버팀목이 사라졌다고 느낀다. 차이는 “프랑스에 있을 때 그 숲을, 너무나 아리따고 울창하고 대담하며, 가축들에게 아늑하고 좋은 쉼터였던 숲을 생각했”(201)기 때문이

다. 게다가 벌목된 후 그 장소는 이제 “어느 태풍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언덕 위에 놓여 있게 되었다”(212). 그렉 개러드(Greg Garrard)는 우리가 생태비평적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환경 문제가 결코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것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32)는 점을 자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의 소설이 묘사하는 스코틀랜드 지역 공동체의 경험은 국제적 사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약탈이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를 동반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그 피해가 결코 지리적으로 균등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전쟁에서 크리스의 남편과 마을의 여러 주축 인물들이 사망하고, 남은 사람들은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선사시대 선돌(the Standing Stones)에 모여 사망자들을 추모한다. 그들은 마을 행사 때 부르곤 했던 노래를 함께 부르지만, 젊은 농부들은 “이해도 못했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 . . 그 노래는 그들이 모르는 시대에 속한 것이었다”(255-56). 이러한 세대 간 단절을 통해, 이 소설은 공동체적, 나아가 생태적 비전과 함께 그것이 마주한 역사적 단절도 냉정하게 지적한다. 소설은 역사와 신화, 자연이 교차하는 선돌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세상 밖”의 햇살과 함께 “나무가 다 사라진” 땅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한다(252). 이 대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기본의 작품은 근대적 세계 너머를 엿보게 해주는 초월적 비전과 함께 치열한 역사적 변화의 현장을 함께 담아낸다.

결론적으로 『일몰의 노래』는 생태적 인식과 경험이 크리스나 차이와 같은 인물들에게 개인의 의식을 뛰어넘는 존재의 확장을 가능케 하지만, 그것 역시 기타 사회적 조건에 대해 의존적이라는 점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특히 크리스를 통해 근대적, 자유주의적 주체가 아니라 땅,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집단적, 생태적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과 더불어 그러한 삶이 위태로워지는 역사적 국면도 함께 드러낸다. 근대적 발전 논리로부터의 (자발적) 소외 및 생태적 환경과의 동일시는 그녀로 하여금 역사를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제국 하에서의 근대화 과정이 자행하는 주변부 공동체와 생태적 환경에 대한 착취, 축출의 과정을 더 잘 체감하도록 만든다.

3. 『구름 골짜기』와 『젯빛 화강암』: 생태적 상상력의 역할과 한계

『구름 골짜기』는 첫 번째 남편 이완이 전쟁에서 죽은 후, 로버트 콜쿠훈(Robert Colquhoun)이라는 이름의 목사와 두 번째 결혼을 한 크리스가 세깃(Segget)이라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이 마을은 킨래디보다는 도시화되었지만 소설의 제목에서 나타나듯 스코틀랜드 북동쪽 지역 어느 골짜기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체로서, 방적공장과 소상인들이 주요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을 역시 1차 대전 이후 사회적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채 폐쇄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는다. 노동자들의 더 인간적인 삶을 위해 기획했던 파업은 실패하고 아기는 유산된 상황 속에서, 절망한 로버트는 마지막 설교를 한 뒤 피를 토한 채 죽는다. 3부작 중 마지막 편인 『젯빛 화강암』에서는 크리스가 세깃에서 멀지 않은 던케언(Duncarlin)이라는 대도시로 이동하고, 클렉혼(Clegghom) 부인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하숙집을 경영한다. 한편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완은 주물공장에서 일하면서 사회의식에 눈을 뜨고,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자본주의 사회의 전복을 꿈꾸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한다.

『스코틀랜드 서』의 2부와 3부인 두 소설의 제목은 각각 작품 내 중심 사건을 이끄는 남성 인물과 그들이 대변하는 세계 인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구름 골짜기』의 “구름”은 로버트, 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들이 바라는 이상향에 따라 바꾸기 위해 실현하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를 속박하고 지배하게 되는 모종의 신념 체계를 가리킨다. 크리스는 “그의 ‘구름 같은’ 희망과 신에 비하면 자신은 로버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420, 필자 강조)는 사실을 감내하기도 한다. 반면 3부 제목의 “화강암”이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크리스의 아들 이완은 어릴 적부터 부식돌 같은 고고학적 유물을 발굴하는데 취미가 있었고, 신념이나 상상력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들에 대해 냉담했다. 크리스는 아들에게 “오, 이완, 너는 젯빛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차갑구나! 네가 자라면 너는 많은 것들에 대한 사실을 발견할 텐데, 너도

사실과는 먼 어떤 추구할 만한 것이 필요할 거야”(381)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고 있는 아들을 보며 크리스는 “인간은 결코 그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515)는 점을 떠올리기도 한다. 이완은 결국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객관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진행되는 역사의 진보를 믿게 되고, 그가 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역사의 도구”(547)로 만드는 일이었다.

2부와 3부에 걸쳐 일견 인본주의와 반인본주의의 극단에 있는 것만 같은 가치 체계, 다름 아니라 자신의 두 번째 남편과 자식이 대변하고 있는 가치 체계 사이에서 크리스는 생태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발일하던 크리스는, 마치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려 많은 양의 토양을 움켜쥐듯 “인류가 자신이 가져야 할 대지에 비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449)를 상상한다.⁶⁾ 즉, 생태적 상상력에 기초한 사유는 그녀에게 20세기 초, 인간이 그들이 설계한 이념으로 세상을 개조하려 하고 또 그것에 의해 스스로 소외되는 모순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려고 오는 사람들과 방법에 대한 의심,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녀의 의심”(401)을 늘 지니고 있다. 또 “그녀가 알았던, 땅에 밀착하여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로버트같이 구름을 쫓았던 사람들, 각자 얼마나 틀리고 얼마나 맞았나? 생명을 향한 제3의 길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까?”(405)라고 상상한다. 『일몰의 노래』 후반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크리스는 대지와 밀착된 삶의 양식이 그 자체로 역사적 현실을 초월하여 영속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위 인용들에서 보듯 로버트가 추구했으나 모순과 비극으로 귀결되고 말았던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인간의 신념으로 인간성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운동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 크리스의 생태적 사유는 특정 인본주의적 가치 체계로 환원되지 않고 그것에 전제된 폭력성이나 모순을 경계하는 의식을 육성한다고 볼 수 있다.

분명 기본의 소설에서 이처럼 생태 환경, 스코틀랜드성(Scottishness), 여성 크리스가 자주 동일시되는 구도는 “대지와 민족,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합” 하고 “물산화” 하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Shoene 80). 하지만 작가는 그러한 동일시만큼이나 그러한 동일시를 누가 호명하고 정의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일시에서 비롯되는 상

상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집요하게 추구한다. 즉, 작가는 독자들이 생태적 비전의 신비주의적 면모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기보다, 애초에 모종의 비전이 사회적으로 구현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권력과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된 현실을 인식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로버트는 크리스에게서 모든 종류의 신념체계에 대한 냉담함, 그리고 스코틀랜드 민족과 땅의 내구력, 자생력 같은 것을 발견하고 “나는 나라와 결혼했다!”(I’ve married a nation!, 401)고 말한다. 그리고 크리스의 아들 이완은 동지이자 연인인 엘렌(Ellen)이 그들이 숭상하는 신념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보이자, “엄마처럼 너도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 아갈 수도 있어”(628)라고 말한다. 인용에서 암시되듯 크리스가 말하고 또 체화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로버트와 이완은 모두 얼마간 존중하면서도 사실 희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들의 태도에는 결국 스코틀랜드의 땅을 상징하는 크리스의 생태적 태도와 상상력이 정확히 무엇이든, 그것이 애당초 현실적인 사회적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실제로 로버트는 스코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울화가 치밀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종교? 스코틀랜드인이 종교를 알아? 그들 중 반은 하나님을 인심 후하고 시인 번즈 좋아하는 스코틀랜드 사람인 줄 알아. 다른 반은 천벌 받을 정도로 심술 맞아서 전지전능하신 신이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지도 않아”(397).

따라서 이 소설은 스코틀랜드 대지와 스코틀랜드인들을 포괄하는 크리스의 생태적 상상력 자체에 어떤 신비화나 낭만화의 위험이 내재해 있더라도, 우선 누군가의 상상력이 항상 동등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수용되며 널리 공유될 수 있는 권위를 누리는지 질문한다고 볼 수 있다. 『구름 골짜기』에서 남편 로버트, 그리고 『젯빛 화강암』에서 성년이 된 이완에 비해 여성으로서 크리스의 사회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그녀가 보여주는 비전이나 태도는 타인을 감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가까운 타인들에 의해 정의되고 설명된다. 기본 소설은 땅, 대지와 같은 것에 기반한 삶의 태도를 추구하면서도 흔한 문학적 관습을 따라 민중, 민초 또는 어머니나

여성의 힘과 연결 지어 탈역사화하지 않는다. 대신 이처럼 생태적 상상력을 사회관계 속에서 냉정하게 맥락화한다.⁷⁾

특히 『구름 골짜기』는 사회적 약자인 크리스는 물론 여타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역사적 맥락에 주목한다. 스코틀랜드 소도시 세깃의 주민들은 영 제국 내부의 타자로서 그들을 제대로 대변할 정치적 지도자도 갖지 못했고, 런던에 대한 의존과 소외, 선망과 경멸 사이에서 제3의 대안적 경로나 목적의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조건에서 초래되는 좌절감과 불안은 결국 상호 적대와 감시, 자기 파괴적인 문화로 표출되는데, 바로 과도한 가십 문화다. “세깃은 당신이 한밤중에 언덕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속삭인 것도 엿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뉴스를 실컷 즐겼다”(486). 사람들은 로버트가 죽자마자 크리스가 역시 오만한 여자였으며 죽은 남편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를 표하지 않았다고 헐뜯기 시작한다(486-87). 이 문화가 만들어내는 비방과 유언비어는 결국 연대를 통한 집단적 행동을 좌절시키고 그 대가는 오롯이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와 공동체를 점점 파탄에 이르게 한다.

크리스는 “너의 발길을 이끌 구름 기둥”이 없다면, 너는 “너의 하루를 밝히고 너 자신에게 재미를 줄 목적으로 너의 가까운 이웃의 스캔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악마, 영웅, 성인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 가십 문화에 대해 비판한다(409). “구름”이 상징하는 것, 즉, 인간이 만들어낸 모종의 신념 체계에 대해 크리스는 줄곧 비판적 거리를 견지해왔지만, 구름의 필요성도 부인하지 않는 셈이다. 그녀는 세깃 공동체가 자기 파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로버트가 추구한 신념, 그의 구름 자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가 로버트의 구름에 대해 보였던 회의감은 그러한 구름이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구성원들에게 건강한 목적의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조건이 현재 스코틀랜드에 부재한 데서 오는 비애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목사이면서도 진화론을 설교하고, 방적공들의 파업을 통해 그들의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길 기대하면서 한편으로 퇴폐적인 지주 모왓(Mowat)의 선의에 기대를 거는 등, 로버트는 각종 신념에 매달리다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마는 인물이다. 로버

트는 그의 파멸이 임박한 순간까지 마치 그 특유의 꿈을 쫓는 눈빛으로 “크리스, 당신 아니면 교회 중 하나야. 그리고 나는 교회의 사람이야”라고 말한다(466). 앞서 논의했듯 로버트는 크리스가 체현하는 대안적 삶의 태도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당장에 인간을 구원할 현실적 동력을 보지 못했고, 대신 즉각 자신에게 가용 가능한 형태의 권력과 자원에 의존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설은 애초에 로버트 단독의 의지로, 그것도 그의 당대에,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상황이 바로 당시 스코틀랜드의 역사적 현실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묘사한 셈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3부 『잿빛 화강암』이 묘사하는 대도시 현실에서 더욱 명징하게 표현된다. 크리스의 아들 이완은 공장노동자로서 사회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고고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유사 이래 변치 않고 자행되어온 계급적 착취에 대한 분노로 발전한다. “너의 친족들, 소작농들, 노예들, 보통 사람들의 육천 년 동안 이어진 끔찍한 삶에 대한 끊임없는 그림들, 오 그들은 너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551) 자문하며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한다. 공산주의자로서 이완은 인간에에 기초한 양아버지 로버트의 사상을 비판하고 객관적이며 불가피한 역사법칙을 숭상했지만, 여전히 인간을 모종의 신념에 따라 인위적으로 개조하고 변형시켜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결국 로버트를 닮아간다. 크리스는 그에게 “너의 [신념]은 내겐 또 다른 어두운 구름 이란다. 또는 내가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는 거대한 바위야”(670)라고 말한다. 로버트의 구름과 이완의 화강암이 모두 인간이 구축한 신념의 모양으로 스코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계도하고 개조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하는 셈이다. 크리스의 생태적 인식과는 달리, 이완은 타자와 역사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이완은 공산주의 실현의 대의를 위해서 다른 인간적 가치나 행복, 윤리 등의 요청을 묵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객관적 역사법칙에 대한 이완의 맹목적 신념은 이미 그 자신으로부터도 개별적 행위자의 결단과 선택의 가치를 박탈한다. 공장노동자들을 연대하려던 기획이 무산되고 함께 공산당에 가입할 것을 타진하지만 그런 선택의 의미에 대해 회의적인 엘렌에게 이완은 말한다. “좋을 리가 없지. 아이들 장난이야, 엘렌. 앞으로 수년간 그렇게 보일 거야.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것과 함께 가야 할 뿐

이야. 역사가 우리 주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이 아니거든”(640). 이완의 인간 해방 기획은 역설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역사법칙의 노예로 만드는 셈이다. 끝내 엘렌은 소소하지만 보다 감각적이고 진실한 행복과 삶의 안정을 추구하며 당을 멀리하기 시작한다. 이완은 그런 그녀를 경멸하고, 이때 그의 얼굴은 “뿔, 차가운 잿빛 화강암 조각에 새겨진 석공의 얼굴”같았다(663).⁸⁾

스코틀랜드 변방의 산촌, 소도시, 대도시로 공동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로버트나 이완이 추구하는 이상 혹은 인간적 해방의 기획을 억압하는 권력의 힘은 실제로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이 시기는 전 세계의 크고 작은 공동체가 초국가적 이념 대립의 경연장이 되면서 국제적 정치 경제 체제로 무자비하게 흡수되고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을 향해 휘말려 들던 때이기도 하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세계화된 생산 양식에 기반한 메트로폴리스의 문화에서는 “실존적 경험이 더 이상 내재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51)고 주장하며 모더니즘 문학 특유의 인식론적 불안과 재현의 위기를 지적한 바 있다. 세계화된 정치 경제적 질서 속에서 민족 문화는 더 이상 참조 체계로서 쉽게 경험과 인식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잿빛 화강암』의 배경인 던케언도 비슷한 위기를 겪는다. 차이가 있다면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대도시보다 시민들의 삶의 위기가 훨씬 더 실존적으로 엄습한다는 점이다. 이 공동체가 놓여 있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는, 이완과 같은 인물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든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그들이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끊임 없이 갈등과 반목이 있고, 경찰들의 조직적인 휘방과 고문이 자행되며, 종교지도자들은 물론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는 각종 미디어는 끊임없이 공산주의자들을 불온 분자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집단으로 재현한다. 작중 『데일러 러너』 신문은 소위 “저 거친 짐승” 같은 파업 분자들이 “직장에서 돌아오고 있던 점잖은 노동자들에 행한 끔찍한 일”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595).

파업이나 시위 등의 활동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군비 경쟁으로 인한 주물 산업의 붐이다. 이러한 호황이 국제 질서에서 어떠한 정치 경제적 원인과 방향을 암시하

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스코틀랜드의 노동자들에게는 자본주의가 매우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과의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제조의 윤리적 부당함을 이완이 주장할 때도, 다수 노동자들은 “네 헛소리 좀 집어 치워. . . . 네가 중국인이든 흑인이든, 그건 내 걱정할 바가 아니야”(577)라고 반응한다. 이처럼 런던 중심의 자본주의적 혜택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스코틀랜드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걸 끊임없이 방해한다.

크리스의 생태적 사유는 물론 남성 인물들의 신념 체계를 억압하는 사회적 감시 권력, 지배 이데올로기는 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통해서도 재현된다. 『젯빛 화강암』의 경우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 인터뷰나 뉴스 기사가 교차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이완의 집단행동에 대한 도시 각계각층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한다. 예를 들어 신문은 교양 있는 공문서적인 문체로 “던케언 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슬픔을 착취하는 극렬분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는 특히 개탄할 만하다”(656)며 이완 및 다른 주동자들의 행위를 설명하고 여론을 주도한다. 이런 서사적 특징은 대도시의 각종 미디어가 얼마나 특정 행위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고 확산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담론에 대한 권력이 비대칭적인 당시 스코틀랜드 사회의 조건 속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원래 의도대로 공론화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구름 골짜기』와 『젯빛 화강암』으로 진행되면서 내용상 크리스의 비중은 낮아지고 그녀는 점점 남편과 아들의 활동에 대해 체념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는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길 꺼리거나 그럴 만한 신념 자체를 지니길 거부하는 크리스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편, 작가 그리고 크리스가 인지하는 당대 사회의 지배 권력이 그만큼 강력해서 쉽게 변혁적 행위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현실 인식을 암시하기도 한다. 크리스는 신념 체계의 하나로서 종교에 대한 거리감을 끝까지 유지한다. “다른 이들이 그걸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종교]는 그녀의 관심이 아니었고, 그것 대신 강요할 만한 걸 그녀 자신은 갖고 있지 않았다”(508). 하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념을 좇다가 파괴되거나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힘이 그녀에게는 없고, 그래서 “크리스에는 끔찍한 외로움, 그리고 [로버트]가 추구했

던 그 구름에 대한 몸서리쳐지는 증오가 닳았다”(440).

결국 그녀의 무력감과 서사적 비중의 감소는 당대의 문제적 현실 변화에 대한 저항적, 해방적 계기를 작가가 스코틀랜드 변방의 크리스와 그녀의 생태적 인식에서 쉽게 발견하려 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크리스와 스코틀랜드의 대지가 동일시되는 이유 역시 그 자체의 특징 못지않게, 국제 사회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자원으로부터 접근성을 갖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약자들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연대하며 나아가 동일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닳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크리스와 그녀가 사랑하고 그녀에게 영감을 주는 스코틀랜드 자연 사이의 관계가 보여준다.

크리스의 생태적 사유는 궁극적으로 그녀의 남편은 물론 끝내 그녀의 아들에게도 공유되지 못한다. 크리스는 자신만의 또 다른 공동체로 하숙집을 운영하려 했으나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마침내 아들 이완을 도시에 남겨둔 채 고향으로 돌아간다. 작별에 앞서 이완은 크리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머니, 저는 생각해요. 항상 어머니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뭐라 이름 붙이든, 아마 결코 끝나지 않을 오랜 싸움이에요. 궁극적으로 자유와 신 사이의 싸움이지요”(670). 이완은 물론 무신론자이지만,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신념이 종교적 색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의 생태적 사유는 그런 신념들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논의했듯 이 소설은 위와 같은 식으로 생태적 사유의 가치와 실현 가능성의 범위를 누가 설명하고 정의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청한다. 이완은 크리스의 근원적, 생태적 자유와 자신의 신념 체계 사이의 관계를 인류의 역사에 내재한 영원한 교착 상태로 정의한다. 그에 반해 크리스는 아무런 확정적 정의를 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완이 그와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사상은 물론 타인의 존재 양식이나 사고방식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한계마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 심리적 우월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완 역시 당시 사회에서 지배적인 계층에 속해서 사회적 가치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공산당에 가입하여 강력한 사회 집단을 대변하여 활동할 사람으로서, 이완은 어떤 방식의 상상력이 주된 저항 방식이 되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와 입장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어머니와 작별하며 남기는 위 의 말은 그가 생태적 상상력에 보내는 지극히 제한된 인정이다.

3부 마지막에 고향에 돌아와 언덕에 올라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 크리스의 모습, 집에 가지 않고 비를 맞다가 “곧 더 이상 비의 촉감도 느끼지 않고, 지나가는 새의 지저귂 소리도 듣지 않는”(700) 크리스의 모습은 자연과 동화되면서 인간적 굴레로부터 자유를 찾는 모습 같아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연상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이지 못하다. 『구름 골짜기』의 종반부에서, 크리스는 “기독교,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상의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구름들, 그리고 그것들을 신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이 모두 구름일 뿐”이며, “추구하는 자(the Seeker), 그리고 변치 않는 언덕들 빼고는 어떤 것도 지속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404). 그녀는 또 “변화, 시간처럼 멈추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579).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변화야말로 “땅과 하늘과 바람을 지배”하는 것이며, “인간의 그 어떤 꿈에 의해서도 멈춰서지 않는다”(672). 결국 마지막 순간 크리스는 변화를 늘 가득히 품고 있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자연, 아무것도 완결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채 열려 있는 생태적 환경과 존재 양식을 향해 몸을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존재 양식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도래할지는 모르나, 그것을 한 인간이 결정하거나 주도할 수는 없다는 진실을 크리스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

요컨대, 공산주의든 종교든 모두 인간이 창조한 신념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인간을 구속한다는 점을 크리스는 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생태적 인식과 상상에 기반하여 크리스가 각종 신념체계로부터 누리는 이 ‘자유’를 지속 가능하고 공동체적

인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지평이 과연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지도 묻는다. 생태적 상상력은 여타 권력과 자원의 배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영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관건은 생태적 상상력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다. 생태적 상상력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 생태적 환경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그와 밀착된 삶의 양식을 잘 아는 저자가 그 점을 가장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크리스에게, 그리고 작가에게, 분명 스코틀랜드의 생태적 배경은 문명을 건설하려는 인류의 정복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사람들, 그것도 지금 당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이상을 실현할 도구가 되어주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생태계는 인간 사회의 모순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오는 기계신(*deus ex machina*)이 아니다. 오히려 약자와 빈자가 희생당하는 것처럼, 생태적 환경도 희생될 수 있고 따라서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자는 결코 안일하게 생태적 상상력과 그에 기반한 사회관계를 20세기 초 횡행하던 인본주의적 신념 체계에 대한 대체제로 제시하지 않는다. 생태적 상상력과 동반된 엄정한 현실 인식이야말로 이 방대한 소설의 서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힘이라 할 만하다.

세계대전을 겪고 또 하나의 전쟁을 향해 달려가던 시점에서, 그리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는 스코틀랜드의 현실에서, 작가는 작품 마지막 크리스의 모습이 암시하는 것처럼 생태적 연속성에 의지한 존재의 연속성을 고수하는 것 외에는 생태적 사유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예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크리스의 생태적 사유가 끝내 상기시킨 것은 인본주의적 신념과 기획만으로 완전히 종결시킬 수 없는 세상의 근원적인 변화, 비결정성이다. 이에 대해 겸허하면서도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생태적 상상력을 더 널리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나갈 때, 보다 지속 가능하고 해방적인 생명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 1) 1920년대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자들에게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작은 국가에 기반하면서 국제적 지위를 획득한 모범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로드리크 왓슨(Roderick Watson)의 *The Literature of Scotland*, 30쪽 참조.

- 2) 제국이 확장하고 노동계층이 부상하는 한편 종교적 영향력은 약화되는 현실에서,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는 잉글랜드 문학에서 민족의 사회적, 정신적 통합의 계기를 발견하고자 했다. 아놀드의 생각으로부터 19세기 후반 스코틀랜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캐러더스의 글 5~7면 참조.
- 3) 호미 바바(Homi Bhabha)나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등의 이론을 빌려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문학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성취를 평가하려는 시도의 예로 벨의 책 28~45면 참조.
- 4) 앞으로 『일몰의 노래』, 『구름 골짜기』, 그리고 『잿빛 화강암』을 인용할 때는 모두 3부작 통합본 『스코틀랜드 서』의 쪽수만 기입한다.
- 5) 필자의 박사논문 *Ageing and Imperial Mobility in the British Novel, 1845-1945*의 세 번째 챕터에서 『일몰의 노래』를 전통적 성장소설과 비교하여 분석한 바 있음을 밝힌다.
- 6) 생태적 측면에 집중하지는 않지만, 크리스가 주로 수행하는 감각적이고 자아와 합일되는 성격의 노동을 여러 남성 인물들이 수행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이며 자기 소외적인 노동과 비교한 연구로 모락 시아크(Morag Shiach) 참조.
- 7) 대지, 여성성에 대한 태도와 냉엄한 현실 인식이 공존하는 기본 소설은 장르의 혼합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얻기도 했다. 그의 소설이 어떻게 로맨스와 리얼리즘이 중첩되며 갈등하는 공간이 되는지, 로맨스가 현실에 의해 부정되지만 현실은 또 어떻게 로맨스에 의해 형성되는지 등을 연구한 사례로 베이커 참조.
- 8) 일반적으로 평자들은 3부작 중 1부인 『일몰의 노래』를 높이 평가하고 『구름 골짜기』와 『잿빛 화강암』은 1부의 문학적 성취를 지속시키지 못했다고 간주한다. 이에 반하여 로이 존슨(Roy Johnson)은 정치소설로서 2, 3부의 특징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기본 소설이 선동적이거나 분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당시 과격 노선을 추구하던 공산주의의 입체적인 면모를 성공적으로 묘사했다고 평한다.

인 용 문 헌

- Baker, Timothy C. "The Romantic and the Real: James Leslie Mitchell and the Search for a Middle Way."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 36, no. 4, 2013, pp. 44-61.
- Bell, Eleanor. *Questioning Scotland: Literature, Nationalism, Postmodernism*. Palgrave Macmillan, 2004.
- Campbell, Ian. "Disorientation of Place, Time and 'Scottishness': Conan Doyle, Linklater, Gunn, Mackay Brown and Elphinstone." *The Edinburgh History of Scottish Literature. Vol. 3, Modern Transformations, New Identities (from 1918)*, edited by Ian Brown et al., Edinburgh UP, 2007, pp. 106-13.
- Carruthers, Gerard. *Scottish Literature*. Edinburgh UP, 2009.
- Craig, Cairns. *Out of History: Narrative Paradigms in Scottish and English Culture*. Polygon, 1996.
- Finlay, Richard. "Changing Cultures: The History of Scotland since 1918." *The Edinburgh History of Scottish Literature. Vol. 3, Modern Transformations, New Identities (from 1918)*, edited by Ian Brown et al., Edinburgh UP, 2007, pp. 1-10.
- Gairn, Louisa. *Ecology and Modern Scottish Literature*. Edinburgh UP, 2008.
- Garrard, Greg. *Ecocriticism*. 2nd ed., Routledge, 2012.
- Gibbon, Lewis Grassie. *A Scots Quair*. 1934. Polygon, 2006.
- Jameson, Fredric. "Modernism and Imperialism."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U of Minnesota P, 1990, pp. 43-68.
- Johnson, Roy. "Lewis Grassie Gibbon and *A Scots Quair*: Politics in the Novel." *Renaissance and Modern Studies*, vol. 20, no. 1, 1976, pp. 39-53.
- McCarthy, Jeffrey Mathes. *Green Modernism: Nature and the English Novel, 1900 to*

1930. Palgrave Macmillan, 2015.
- Nairn, Tom. *The Break-up of Britain*. NLB, 1981.
- Palmer McCulloch, Margery. *Scottish Modernism and Its Contexts 1918-1959: Literature,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Exchange*. Edinburgh UP, 2009.
- Royle, Trevor. "Literature and World War One." *The Edinburgh Companion to Twentieth-Century Scottish Literature*, edited by Ian Brown and Alan Riach, Edinburgh UP, 2022, pp. 37-49.
- Schoene, Berthold. "Cosmopolitan Scots." *Scottish Studies Review*, vol. 9, no. 2, 2008, pp. 71-92.
- Shiach, Morag. "A Scots Quair and the Times of Labour." *Critical Survey*, vol. 15, no. 2, 2003, pp. 39-48.
- Sohn, Iisu. *Ageing and Imperial Mobility in the British Novel, 1845-1945*. 2016. U of Washington, PhD dissertation.
- "Sunset Song Voted Scotland's Favourite Book." *BBC*, 17 Oct. 2016, www.bbc.com/news/uk-scotland-37677187. Accessed 25 Sept. 2022.
- Watson, Roderick. *The Literature of Scotland*. 2nd ed., Palgrave Macmillan, 2007.
- _____. "The Modern Scottish Literary Renaissance." *Edinburgh Companion to Twentieth-Century Scottish Literature*, edited by Ian Brown and Alan Riach, Edinburgh UP, 2009, pp. 75-87.

Abstract

Lewis Grassic Gibbon's *A Scots Quair*: Ecological Imagination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Ilsu Soh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essay aims at two academic goals by analyzing Scottish writer Lewis Grassic Gibbon's *A Scots Quair*. First, a study of Scottish literature, especially the Scottish Renaissance during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ill help to rethink England-oriented studies of British literature in South Korea and to widen the horizon of studying twentieth-century English literature and modernism. It is only recently that scholars began to appreciate how the primary writers associated with the Scottish Renaissance resisted regressive nationalism or idyllic regionalism. Although the Scottish Renaissance rarely received critical attention in South Korea, it had arisen to reestablish Scottish identity within the ever more complex relationship with the British Empire after the First World War and thus offers an invaluable position to investigate the inner contradictions of British literature. Second, this essay's study of Gibbon's masterpiece will focus on its ecological imagination and the ways in which it helps to design more inclusive and just social relations. The protagonist Chris's ecological attitude and imagination allow her a critical stance toward a series of humanistic beliefs that seek to remodel humanity on

their ideals; however, the novel never compromises its realistic recognition of grueling social conditions at the time in Scotland which made it difficult for her vision to be actualized. This powerful ecological imagination combined with the uncompromising historical consciousness creates a narrative tension in this magnum opus and helps to maximize its artistic greatness.

Keywords: *A Scots Quair*, Lewis Grassie Gibbon, the Scottish Renaissance, Ecological Imagination, Historical Consciousness

논문접수일: 2022.09.25

심사완료일: 2022.10.16

게재확정일: 2022.10.21

이름: 손일수

소속: 부산대학교 영어교육과 조교수

이메일: ilsusohn@pusan.ac.kr